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총장 황원찬 박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TEL 031-470-3333 FAX 031-473-5947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http://www.dtu.ac.kr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Westminster Graduate School Theology
이사장 한동숙 목사 총장 정인찬 목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준전대로 201-11 (중동 38-1)
Tel : 031)270-6000 Fax : 031)270-6060

이사장 : 조강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92호 2015년 9월 13일 주일

대한신학대학원대 2015. 2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 드려

황원찬 총장은 출국에 앞서 총장대행에 서재주 교수를 지명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 박사)는 지난달 31일(월) 오전 11시 채플실에서 2015학년도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 이어 9월 5일(토)오전 11시 동 대학원은 2015학년도 2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를 드렸다.



교목실장 박재봉 교수의 인도로 총장, 이사, 교수 순으로 입장을 하고 개회사에 이어 송은주 교수의 기도, 민화규 학생과장의 성경봉독(행 17:24~25), 총장 황원찬 박사는"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황 총장은 말씀을 통해"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은 엄청 큰 축복이라면서 자부심을 갖고 사명을 위하여 힘쓰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도 문제도 될 게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 특권을 가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을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큰 축복을 주셨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배은망덕한 행위로 타락하고 있다. 학교 여선생이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안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즉각 여선생은 해고당했다. 축복을 받은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학교당국은 성경을 가르침을 법으로 금지령을 내린 상태이다. 오직 사립학교에서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재숙 사회복지학과장은 신.편입생을 소개하고, 윤호열 법인이사의 축사, 이종식 법인감사의 권면, 황원찬 총장의 훈사가 있은 후 신축중인 교사를 위하여 교수와 신입생들을 위하여 합심기도를 하고 총장권한대행 서재주 교수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황원찬 총장은 7일(월) 渡美하여 13일 오후 3시 남가과주 섭김의교회에서 제5대 이사장 취임예배와 명박 수여식을 진행한다. 또한 황 총장은 10월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대한신학대학원과의 관련된 미국 내 교회와 신학교 등을 순회하면서 설교와 강의를 하게 된다. 본 대학원대학교는 총장 유고시 서재주 교수가 총장대행을 맞게 되어 학사일정에 힘쓰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황원찬 총장에게 보고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재주 교수(총장권한대행)의 초청으로 9월 18일(금) 오후 4시 중국 기독교지도자 대표 11명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방문 MOU를 체결한다. 이들 중국 기독교대표들은 한국을 방문, 교회 4곳, 학교 3곳을 견학을 하는데 본대학원과 전주대학, 서울신대, 온누리교회, 신촌성결교회 등을 탐방하게 된다.

한교연 2년간 몽골에 22개 게르교회 건축 헌당

현지인 목회자 대상 목회자 세미나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원하는 몽골 선교와 게르교회 건축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교연은 지난 해 몽골 전통 양식의 게르교회 10개 처를 건축해 헌당한데 이어 올해 12개처를 새로 건축 헌당함으로써 몽골내에 총 22개의 게르교회를 세웠다.

한교연 공동회장 김효종 목사(예장장신 총회장), 선교위원장 노윤식 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장 김진신 목사, 법인이사 박요한 목사 등 임원과 사무총장 김춘규 장로, 선교교육국장 최귀수 목사 등 20명의 몽골 선교방문단은 지난 8월 31~9월 5일 몽골 울란바타르 시내와 교외에 몽골의 전통 거주형태인 게르교회 12개 처를 건축해 헌당예배를 드리는 한편 몽골 현지 목회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선교 및 목회 세미나를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헌당식을 가진 몽골 게르교회는 한교연과 CBS기독교방송(사장 한용길)이 몽골 게르교회 건립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013년 10월 4차례에 걸쳐 모금생방송을 개최해 성도들로부터 모금된 헌금과 한교연에 입금된 지정기탁 헌금, 개인 선교헌금 등이 모아져 이루어졌다.

9월 3일 울란바타르 시내에 위치한 이벨링호르장로교회에서 열린 개회예배는 노윤식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으며, 몽골복음주의협의회(MEA) 임원들과 소속 현지사역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노윤식 목사, 김진신 목사, 박요한 목사, 곽명선 목사, 김혜은 목사를 주강사로 3일간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으며, 4일에는 12개 게르교회 합동 헌당예배 및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헌당한 교회는 벧엘교회(담임 투위신자르갈, 기증자 김옥자 목사), 생명의빛교회(담임 오랑만다흐, 기증자 오민록 목사), 날라이흐 변화교회(담임 어트겅바타르, 기증자 백근관/양인숙 집사), 예수님의제자교회(담임 나상자르갈, 기증자 세영교회 전도선교위원회), 사랑받는 알타이교회(담임 에르데네체첵, 기증자 배명임 권사), 나는여기있다교회(담임 자위지마, 기증자 권지우/권보라), 영원한사랑교회(담임 엥흐바야르, 기증자 김병수/김지연), 밝은길교회(담임 남바트, 기증자 김효종 목사), 변화시키는교회(담임 강바타르, 기증자 문지영), 믿음의길교회(담임 강볼가, 이경숙권사 이덕주 집사), 임마누엘교회(담임 타마샤 기증자 권선예 전도사), 불빛별교회(담임 을함자브 기증자 임양희/김성욱) 등 12개 처로 모두 6한타(지름 6미터) 크기의 교회이다.

2면에 계속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소중하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유린해도 되는가?



사)한국교회언론회 유만석 회장

최근 미국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가 동성 간 결혼한 것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법정 구속되었다. 그가 법원 서기로서 동성 간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종교적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6월 26일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하였는데, 이미 동성결혼을 인정한 각 주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작년 11월 아이다오주에서는 동성커플의 결혼 주례를 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냅 목사가 1심에서 180일 징역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었다. 또 오레곤주에서는 빵집을 운영하는 아론과 멜리아 부부가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하여, 1억 4천만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그런가 하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5살 난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주에서는 공립 고등학교에서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 동방박사는 에이즈 환자'라는 황당무계한 내용으로 연극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5년 애틀란타주에 소재한 스틸워터스 연합감리교회의 캐롤 헐슬랜더 목사는 동성애에 반대할 것을 교단에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후에, 교단에서 목사직을 면직 당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천부적 인권인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공산주의와 대립해왔고, 세계 각국에 자유민주주의의 전도사를 자처해 왔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이런 가치관을 지지하고, 존중해오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최근 유독, 극소수인 동성애자들은 법으로 보호하고, 신앙적, 윤리적 양심과 신념에 의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입과 생각과 표현은 혐오범죄로 몰아 형사처분(刑事處分)으로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 비윤리 행위이며, 수정헌법과 독립선언문을 유린함으로 미국이 추구해 오던 가치관을 저버리는 것이다.

동성애는 법으로 보호받을 천부적인 인권이 아니라, 성적쾌락을 누리려고 성적자기결정권을 남용하는 방종의 행위 일뿐이다.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편들어 양심적인 다수의 국민을 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법의 횡포이고, 성경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성(城) 멸망의 전초를 밟아가는 것이다.

자칭 인권의 나라 미국, 종교와 양심의 자유 탄압을 본받을까 염려된다

진정 미국에 '인권'이 살아 있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살아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국가라면, 동성애보다 먼저,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부터 금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은 외국사례서 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자녀들과 미래를 지켜가야 할 것이며, 미국 등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한 방법도 강구할 때라고 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제100회 총회 소집 공고

주제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9:31절)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칠 박사 천복교회
경남신학원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회의록부서기 박영석 목사 예본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일시 : 2015년 9월 17일(목)~18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 시무)

본 합동보수교단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개 교회의 가입을 한영합니다.

협 찬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 영석 목사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0-168 H.P 010-5325-389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뉴 스포츠 이지볼(EasyBall) 대회 열려



지난 27일(목)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스포츠인 이지볼(EasyBall) 대회가 열렸다. 비록 큰 규모의 대회는 아니지만 안산/ 서울/ 청계/ 고천/ 의왕A/ 의왕B팀 등 6개팀이 참가하여 새로운 이지볼(EasyBall) 스포츠를 경험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지볼(EasyBall) 대회를 개최한 국제 이지볼(EasyBall) 협회 손용재 목사는 이 스포츠를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든지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즐거운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만큼 규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생소하지만 이지볼(EasyBall)을 하는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이지볼(EasyBall)은 네트가 2m 간격으로 2개가 세워진다. 네트 높이는 150m, 공의 둘레는 275cm, 코트는 가로9m*세로14m이다. 한 세트 21점으로 하며, 6명이 한 팀이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특별한 기술이 없고, 운동의 초보자도 알마든지 할 수 있도록 손용재 목사(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뉴스포츠선교학과 교수)가 개발한 뉴 스포츠이다.

지금의 이지볼(EasyBall)은 2014년 테니스와 배구 농구에서 힌트를 얻어 배구경기를 크게 변형한 뉴스포츠로 두 개의 네트와 다양한 점수제(1점 2점 4점등) 대중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남녀노소 누구나 오락처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개발 하였다고 한다.

이지볼(EasyBall)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국내외 유일한 레크레이션적 스포츠이며 우리나라 전통적 윷놀이 에서 착안하여 1점 2점 4점을 얻는 즐거움과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게임이라고 한다. 이것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문화를 만들며 차별 없는 스포츠로 장년층, 노년층 들도 실내 체육관에 남녀노소 혼성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뉴스포츠이며, 이러한 이지볼을 사회생활 체육 일환으로 국내에 널리 보급,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손용재 목사는 말한다.

이를 위하여 2014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안양 석수동)에서 스포츠 선교를 위하여 선교학과를 개설하고 2015년 2월 뉴 스포츠 이지볼 강사 1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의왕시 국민 체육센터 그리고 광주 성암 교회 등에서 주2회 시범경기를 하면서 발전하게 되었고, 2015년 9-11월에 전주 포천 남양주 인천 공주 음성 군포 의왕2곳 안양동안구 만안구 안산 과천2곳 등에 총16곳 등지에서 뉴스포츠 이지볼(EasyBall)이 보급될 계획이라고 한다.

축구공 하나에 수십억의 인구가 울고 웃는 시대이다. 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든다. 사상과 이념 등 서로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 어우러질 수 없는 곳에서도 공 하나에 사상과 이념을 잠시 접어두고, 모일 수 있는 것이 둥근 공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지볼(EasyBall)도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이 전파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손용재 목사는 말을 이었다.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지만 이지볼(EasyBall)을 통하여 손목사의 비젼과 복음에 대한 열정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널리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

교단의 총회를 앞두고

교단들마다 총회를 앞두고 있다. 물론 이미 결정 된 총회장과 예정된 부총회장이 있겠지만 교단마다 그 정관대로 총회장단을 구성함에 금년에는 보다 색다른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어떨까? 이를테면 국가의 청문회와 같이 출마자의 토론장을 펼쳐 당사자들의 정책과 계획과 능력을 겨루는 선거말이다. 거기에도 말만 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의 평소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였느냐하는 것으로 선출될 수는 없는가? 교단을 맡아 일할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목회자보다도 먼저 인간다운 사람인가를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고, 즉 총회장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써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마음에서이다. 교회를 내세워 총회장이 되고 기독교 리더가 되고 보면 목회자들의 모임이나 사회 사람들의 모임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을 느낀다. 더 묻고 싶다면 '왜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가? 그리고 총회장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함께 개인주의 성향이 커지면서 권위주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권위주의적 리더쉽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대신 비정치적 영역에서 힘이 확대되고 있다. 오랬동안 쌓여진 세상적 흐름에 얹혀진 기독교 교단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 양창삼박사의 저작인 [기독교 세계관과 삶의 리포지셔닝]에 기독교 리더쉽의 8가지 기둥(Eight pillars)이자 예수 리더쉽의 근간을 읽으며 감동이 되어 적어 본다.

1) 하나님의 비젼을 드러내는 리더쉽(Visionary leadership)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희망을 보여주는 비져너리(Visionary)가 되어야 한다. 본래 '비젼'이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진실로 꿈과 같은 기독교적 세상을 향하여 가려면 교회가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 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를 잊지 말고 새롭게 달라지도록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 섬김의 리더쉽 (Servant leadership)

총회장이라면 교회에 속하든 교단에 속하든 우리 모든 크리스챤은 주님에게 속하였으므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실 기독교 리더쉽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섬김에 있다. 섬김의 리더쉽의 모범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사회에서 '교회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섬김의 변화로 말미암음일 것이다. 섬김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교단장의 섬김은 성경적인 섬김이어야 한다. 이는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즉 생색내기 섬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섬기는 자 섬기는 교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 하는 리더라 할 것이다.

3)변혁의 리더쉽(Transformational leadership)

교회는 사회와 깊은 관계를 갖고있다. 이 사회는 교회가 앞장서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는 어떤 종교이든 사회변혁 능력이 어떤가에 따라 그 종교의 존폐가 좌우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한다. 더구나 남북의 통일을 소망하는 즈음에 교회의 역할은 주님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듭나라'고 하셨다. 인간에 그 어떤 변화보다 거듭남의 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

4) 전이의 리더쉽(Transferring leadership)

전이란 번저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살과 살인'이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날로 전이되어가고 있다. 세계의 으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담고 있다. 교단장들이여 살리는 일을 하라.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자신의 이력서에 스펙을 쌓으려 하지 말고 죽어가는 교회와 함께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하라. 이를 저자 양창삼박사는 '전이의 리더쉽이 활성화 되려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쌓아 가라'고 한다. 남이 잘되면 기뻐하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위험이 있으면 서로 알리는 이러한 관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더욱 강화 된다고 한다.

5) 살리는 리더쉽(Life living leadership)

교단의 지도자는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를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교회가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것도 크다하는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하며 주님을 타 종주 중의 한 분과 같이 여기는 세태이다. 명예에 얽메이고 자리에 눌려 세상의 창조주도 구원주도 올바로 믿지 아니한 상태이고 보니 세상이 교회를 어찌보며 교인들을 어찌 생각하겠는가? 오히려 교단의 지도자 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 이런 때에 진정 교단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삶속에 살아 움직일 뿐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리더쉽이 될것이다.

6) 끊임없이 개혁하는 리더쉽(Reforming leadership)

교회는 끈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간 한국교회는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혁보다 구호만의 개혁이 난발해 왔다. 총회나 교회에는 일꾼보다 정치꾼이 많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며, 교회라면 그 영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제야 말로 잃어버린 에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일이며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 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모두가 교회의 바른 모습을 찾게 된다.

7) 영성 회복의 리더쉽(Spirit recoering leadership)

교회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중시한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입으로도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현재 우리 성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할 가장 필요한 것은 목회자 및 교회 중직자들의 의식 변화를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성도의 영적 각성과 신앙적 열정적인 영성회복을 말한다.

8) 통합의 리더쉽(Leadership integration)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진보니 보수니 혹은 개혁이니 통합이니 합동을 논하고 있다. 교단의 크고 작은 것과 학교의 크고 작은 것을 논하지 말고 케돌릭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해야할 작업은 바로 모두가 하나되는 통합 작업이다.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차별을 두지말고 오히려 조화롭게 균등한 계층을 이루도록 크리스챤의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이 시급하다. 어느 정치인이 말한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하신 것은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시면 교회에 들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몇 가지의 리더쉽을 제시 해보았다. 과연 이것을 받아 들여 총회장이 되고 교단장이 될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다고 말만 무성히 하지말고 국내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므로 다시한번 이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성도 개인이 자부심을 갖고 신앙에 열심 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한교연 2년간 몽골에 22개 게르교회 건축 헌당

1면에 이어서

한교연 선교방문단은 12개 교회 중 날라이흐 변화교회와 생명의빛교회, 벧엘교회 등 3개 처를 직접 방문하고 현지 목회자 성도들과 함께 현판식과 헌당식을 거행했다.

게르교회 건축은 한교연과 CBS 공동모금방송을 통해 모금된 게르교회 건축 헌금과 한교연에 입금된 지정기탁금, 개인 헌금으로 몽골 현지에 파송돼 한교연과 몽골복음주의협 사이에서 상호 협력을 이끌어온 이경준 선교사(NGO 진실한 손 대표)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게르교회 신축 후보교회 선정은 전적으로 몽골복음주의협의회가 정한 규정에 의거, 공정한 추천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게르교회 건축 비용은 내부 집기를 포함해 8한타 크기는 1천만원, 6한타 크기는 5백만원 선에서 이루어졌으며, 신축 게르교회는 3년간 한교연이 현지사역자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3년 후에는 몽골복음주의협의회에 재산권 일체를 이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교연은 몽골 현지인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제3차 게르교회 헌당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조강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일하며, 배우고, 선교하는"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한평우 원장

■ 한평우 원장(로마한인교회 목사) 인사말

우리는 지금 자극적인 문화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감각 내지 무감동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장은 그럴듯 한데 신앙의 내용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영적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 쳤던 현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치열한 신앙의 현장인 카타콤배, 또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걸어왔던 아피아 안티카의 길,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던 감옥, 바울의 참수 터 등등 2000년 우리의 영적 선배들의 신앙의 편린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찾는 이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거스킨이나 루터가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로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잇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일찍이 이곳에서 유학의 경험이 있었던 유홍준 선교사님이셨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력한 청소년들에게 영적 꿈과 도전을 주기 위한 이 거룩한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홍준 선교사님의 하시는 이 일에 저와 로마한인교회가 동역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 모집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입학 자격		만18세 이상 고교졸업자로 기독청년, 선교사, 목회자 후보생 등	면접후 선발
정 원		30명(남20명 / 여10명)	
캠퍼스	예비과정	비전교회 / 좋은이웃교회 / 송암교회	한국
	본과정	로마한인교회	이태리 로마
학비	예비과정	30만원 / 월(수업료)	별도의 등록금 없음
	본과정	100만원 / 월(숙식비, 수업료)	항공료 별도
장 학 금		본교 기준에 의거 선발	학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모집 기한		1차 2015년 9월12일 까지	추후 수시모집
접수 및 문의		각 교회(상담 면접후 등록)	유홍준 선교사 (010-9070-5921)

■ 교육프로그램

구분	내용	교육기간
예비과정	이티리어, 원어성경, 창조호흡찬양 리더쉽 및 특강	4개월(매주 토요일 1회) 2015년 9월- 12월까지
본 과 정	이태리어, 영어, 역사, 신학, 선교학, 기독교 세계관 및 특강	6개월(공동체 생활) 2016년 1월-6월까지

■ 설립취지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는 복음의 핵폭발을 이루었던 사도바울의 순교지이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성지인 로마에서 "일하며, 배우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최정예 선교 아카데미입니다.

■ 설립목적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는 첫째, 올바른 신앙인 육성/ 둘째, 청소년 진로개발 및 청년기 세계관 정립/ 셋째, 미술, 음악, 예술 전문가 양성/ 넷째, 유럽 유학 및 언어연수, 현지취업비전을 개발하고/ 다섯째, 기독교 역사관을 비롯한 유럽국가 역사공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료후 진로

선교 가이드 사역(2개월 별도 연수 후 자립)
소명 또는 전공에 따라 이테리 현지 대학 진학(국립대, 사립대, 시립 아카데미 등)
신학, 음악, 미술, 건축, 디자인, 요리 및 각종 기술학교 진학 가능. 귀국 후 복학
문의 : 유홍준 선교사(010-9070-5921)

대한노회 2015년 하계수련회 비전특강

영적대각성운동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갖자



예장개혁총회 대한노회는 지난 17일(월) 오후 7시부터 19일(수) 오전까지 강원도 춘천시 오월리 강원 숲 체험장에서 2박 3일간 대한노회 2015년 하계수련회를 갖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회복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주 재림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자"라는 주제로 2박 3일간의 비전특강에 40여명의 노회원들은 많은 충격과 도전을 받았으며, 말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살리는 목회, 영성회복의 시급함, 영적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갖자는데 하나가 되었다.

이날 비전특강에 앞서 서기 박민규 목사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회계 유순옥 목사가 기도를, 주사랑교회 장정훈 강도사 외 18명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으며,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봉독한 요한계시록 22:17~19절을 중심으로"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아멘.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부르신 대상은 누구인가'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이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구원받은 대상자들을 향하여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총회장 김정렬 목사) 서기 조재호 목사가 총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전하고, 아울러 격려사를 했다. 이어 노회 서기 박민규 목사의 광고 및 참석자를 소개하고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첫 날 개회예배를 마쳤다.

특별강사로 나선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수련회 일정에 따라 2박3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주 재림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자 대한노회 40여명의 목회자들이 충격과 도전을 받았으며 배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다짐하면서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도 모범된 사역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각자 목양지를 향해 하산했다.

한보협, 성경원형회복운동에 작은 불꽃되리라

지왕철 목사, 광복 제70주년 8·15기념예배 및 성경 세미나 가져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 이하 한보협)주최로 지난 14일(금)오후 1시 서울 여전도회관 2층에서'광복 제70주년 8.15 기념예배 및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예배에서 협의회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사회로 손현근 목사(예장.합동보수 총회장)가 기도를, 박종열 목사(예장.예신 총무)의 성경봉독(삼상 18:1~5), 남상운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개혁 총회장)는"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됨"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남 목사는 설교에서"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민족이 광복을 맞아 몸은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해방되지 못했다면 광복은 의미는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2부 성경세미나가 협의회 서기 이상원 목사 사회로 진행되고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광복 제70주년 8.15 해방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보수성경원형(본질)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강사로 나선 본회 상임고문 지왕철 목사는 고후3:6절을 주제로 보수성경원형(본질)회복운동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란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교리를 지키는 것이 보수라는 대답이 30%가 되며, 보수란 보존해서 지키자는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정통신앙이나 교리를 거절하고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본래 원형, 성경본질이 있는데 수세기동안 흘러내려오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질되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보협)는 보수는 성경에서 말한 원형(본질)을 보존해서 지키는 데 있다. 즉 보수의 개혁이 시급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원형에서 말씀하셨던 본질이 내려오면서 역사적으로 훼손되고 변형.변질이 되었다. 그 결과 안타까운 것은 변화된 이것을 보수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잘못된 보수를 다시 보수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란 정통적인 신앙교리가 아닌 처음서부터 말하는 원형, 성경원형의 본질을 보존하는 보수이다.

아울러 보수신앙은 보수를 전개해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 보수원형운동은 어떤 교단의 교리나 신앙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찾자는데 있다. 창1: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적을 상실한 것 같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어떤 갈망이 있어서 천지창조를 하셨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동역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업적을 이루려고 부르셨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목사는 성경 한 구절 읽고, A목사, B목사, C목사의 설교가 각각 다르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혼란스럽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왜 목회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는가를 자문자답하자고 했다.

그리고 A.B.C라는 목회자의 이상이 각각 다르다. 각자의 이상에 따라 자신을 주장하다보니 교파가 수없이 나누어졌다. 우리의 이상은 접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어떤 이는 성경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라며 그것만 강조한다. 하지만 성경전체를 보아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놓고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상이 있고, 그 후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상이 있으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상이 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이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이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부름 받은 목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작은 양을 먹이라 무엇을 먹이라는 명령인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오셨다.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도는 오직 생명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만을 먹어야 하며 또한 먹어야 한다. 그 외에는 모두다 쑥이며,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했다.

생명나무 외에는 다 선악나무요, 지식이며, 사망이다. 피로 구속받고 심판에서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모두다 예수님을 상징)을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먹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합당한 처소가 될 수 있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먹이는 교회로 회복하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에게 쑥은 독이다 했고, 하나님은 시몬에게"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작은 양을 먹이라"라며 쑥인 독초를 먹일까 염려하셨다. 영생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다 쑥이며 사람을 죽이는 독초이다. 교회는 피로 구속받고 심판에서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을 먹여야 한다고 했다.

(갈1:7~8)「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아멘.

이날 상임고문 지왕철 목사는 '앞으로 교회의 운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원형(본질)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성경원형(본질)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큰 시급한 과제는 없다면서 이것을 위해 성경원형(본질)회복운동을 각 교단장들과 함께 앞장서는데 힘쓸 것이며, 각 도시를 찾아가 성경원형(본질)의 작은 불꽃이 되어 전개해 나가겠다며' 다짐했다.

이어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는 결의문을 통해 △정치인들은 당리당략과 붕신과 분열과 대결의 정치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 줄 것, △일본은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등을 반성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 △교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및 세속주의를 용납하지 말 것 △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할 것 △ 종북 반역 세력을 축출하고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1부에서는 민정식 사무총장의 사회, 손현근 목사의 기도, 박종열 목사의 성경봉독, 남상문 목사의 설교, 안경조 신오성 사금열 목사의 특별기도, 김준희 목사의 헌금기도, 민 사무총장의 결의문 낭독과 광고, 남성운 증경대표회장의 축도, 2부 세미나는 서기 이상원 목사의 사회, 김 건 목사가 성경봉독과 기도를, 이범성 대표회장이 축도 순으로 마쳤다.

소진우 목사 2013년-2015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4-9 선교지방문
11-13 행복한교회(박성일 목사)
18-20 청원제일교회(최준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 서광교회 (김창수 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현 목사)
30-31 송구영신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순복음교회(양병열목사)
4 능곡명성교회(송한철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3-16 목양장로교회
17 한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은기도원

2014년 2월
3-6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2 인천은혜교회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7-19 대구열린문교회
21 갈멜산기도원 금요철야(임예제 원장)
23 성화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봄철 축복대심방
3-5 원천교회(최성근목사)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4년 4월
7-10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4-17 축복교회(배성은 목사)
21-22 정기노회
28-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4년 5월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2-14 나눔애교회(최종덕)
19-21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5-31 특별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4년 6월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3 선교사집중세미나
16-19 벧엘선교센터(서형범 원장)
23-27 선교지방문

2014년 7월
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7-10 에덴교회(양화옥 목사)
14-17 모리아기도원(조선희 원장)
28-30 전교인여름수련회

2014년 8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6 한얼산기도문(이영금 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8-21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5-28 천문기원을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4년 9월
1-2 중부지역 연합성회
3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5-17 성산교회(유경춘목사)
22 은혜성결교회(정순출목사)
22-25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3 선교지방문

2014년 10월
6-8 천호성결교회(여성삼목사)
12 성문교회(이종래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진주기도원(김진홍원장)
20-23 인천서흥교회(강규석목사)
26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7-27 에덴교회(이원종목사)

2014년 11월
3-6 여수서광교회(배영길 목사)
10-14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7-19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4-27 포천제일교회(권혁주 목사)

2014년 12월
1-3 성은교회
7-10 김종복목사 초청 성막세미나(예복교회)
8 경기북노회연합성회
15-19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2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31 신년축복을 위한 산상기도

2015년 1월
2 한얼산기도원철야(이영금 원장)
4 안양광은교회(이동환 목사)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12-14 온양풍기교회(백현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9-21 길산교회(김등환 목사)
25-28 답십리침례교회(최종호 목사)
3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5년 2월
2-5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9-11 원천교회(최성근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6-19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3-25 대구중앙교회(양원영 목사)

2015년 3월
축복심방의 달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30-2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6-10 선교지사역자세미나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4 정기노회
19-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27-29 능곡명성교회(송한철 목사)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봄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2015년 6월
1-3 진접교회(송일육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아교회(조선희 목사)
18 오산리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젼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앙선 원장)
13-16 길해베델수양관(이순자 원장)
20-23 반석기도원(김명숙 원장)
27-30 에덴금식수양관(양화옥 원장)

2015년 8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20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31-1 언론사 연수원 수련회대표회장조강수 목사
1 오산리최자심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7-11 은누리복음화(엄기호 총재)
14-15 교단총회
14-16 군자대현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자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장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원)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9 가을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6-18 횃불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3-25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얀마선교지방문
7-9 살롬교회(고정임 목사)
14-16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8-31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경: 시편 4편 5절 찬양: 찬송가 456장

오늘 내가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의의 제사라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에 반응하게 된다. 1절에서 말했듯이 의의 하나님이신께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말 것이다. 온전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갈급한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목: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성경: 시편 4편 6절 찬양: 찬송가 246장

사람에 따라 인생에게 좋은 것(선)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의 절망적인 처지만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해야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 사방은 막혀있다고 고개를 숙이고 아랫것을 바라본다고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다 한들 위에는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늘문은 이미 활짝 열려 하나님은 그의 얼굴과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있고 우리는 다만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목: 마음 깊은 곳의 기쁨
성경: 시편 4편 7절 찬양: 찬송가 365장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마음 깊은 곳까지 미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풍족함, 풍요함이 아닌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줄 수 도 없는 것과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재미는 인간을 오히려 타락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것이거나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은 영원하며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기쁨입니다.

제목: 나를 살게 하시는 이
성경: 시편 4편 8절 찬양: 찬송가 337장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더 큰 기쁨과 축복으로 여긴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수많은 공격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의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내일의 환란의 날을 대비하고 그것을 극복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왕이신 하나님
성경: 시편 5편 1-2절 찬양: 찬송가 421장

우리가 오늘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 땅에서 펼치시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신정 통치적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자신 위에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면 나의 삶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을 살아 갈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주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성경: 시편 5편 3절 찬양: 찬송가 540장

다윗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기도는 간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을 본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종종 기도 할 때 자기 이야기만 다 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음성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목: 주의 목전에 들어 갈 수 없는 자
성경: 시편 5편 4절 찬양: 찬송가 242장

본절부터 6절까지는 주의 목전에 들어 갈 수 없는 자들의 영적인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죄를 물리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려하고 쓰리지게 하는 죄는 대적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욱 가까이 갈 때 승리하는 삶과 주의 목전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목: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 시편 5편 5-6절 찬양: 찬송가 463장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닌 주께서 싫어하는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악인이라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그의 길은 행복과 복된 삶이지만 그렇지 않은 삶은 파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내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성경: 시편 5편 7절 찬양: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은 풍성하며 불변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에 반응 하는 것이 예배 일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는 삶 그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호흡 있는 동안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제목: 내가 걷는 이 길이
성경: 시편 5편 8절 찬양: 찬송가 518장

원수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열어 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며 자기백성을 향한 길을 인도 받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조금 돌아가는 듯 해보여도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거짓말과 속임은
성경: 시편 5편 9절 찬양: 찬송가 442장

다윗은 또 다시 악인의 악한 성품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그의 원수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들인지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마음 중심조차도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거짓말과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5편에서는 반복됨으로써 악인들이란 이 두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속이고 거짓으로 시작되었듯이 작은 거짓과 속임수에도 경계하고 주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목: 하나님께서 일 하시도록
성경: 시편 5편 10절 찬양: 찬송가 393장

다윗은 그를 대한 대적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배반에 철저한 응징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반역의 행위가 단순히 다윗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배반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추방을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대적을 향하여 보응 하시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제목: 기쁨으로 가득한 삶
성경: 시편 5편 11절 찬양: 찬송가 565장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결론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앞절에서는 악인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간구한 반면 여기서는 의인에게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기쁨은 영구적이며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때만이 이 기쁨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찾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서 사는지 나를 돌아보고 그 누구도 무엇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칼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

사람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이 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행복해지며 지키지 않으면 불행해 지기도 한다. 음악이라는 학문에도 법이 있다. 이 법을 지키면 아름다운 음악이 연출이 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안정적이며 즐거움을 얻게 한다.

교회음악이라는 것은 학문으로 볼 때에는 이와 같은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구태어 음악이라는 학문을 교회음악으로 분류하고 또 이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목적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웬만한 교회를 가보게 되면 드럼이라는 악기가 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한 일을 보게 되는데 드럼의 소리가 너무 커서 투명 아크릴로 드럼이라는 악기를 감싸도록 설치를 한 것을 본다. [소리가 커서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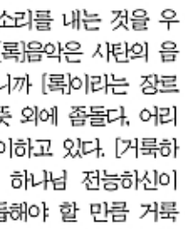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드럼의 소리를 측정해 본 일이 있는데 250데시벨 이상으로 비행기의 이륙할 때의 소리의 크기와 맞먹는 소리를 낸다. 이런 정도의 소리라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데 충분하리라. 아마 정신이상의 증상도 가능할 것이다. 드럼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투명 아크릴로 막았다. 그런데 왜 아크릴판 너머로 마이크를 2개 또는 4개씩이나 설치를 했을까? 그리고 정작 드럼을 치는 드러머는 귀마개를 하고 드럼을 친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받으실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분이 원하시는 찬양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귀마개를 하고 치는 드럼, 마치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굉음의 소리인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할 것을(고전14장) 우리가 노래를 잘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들만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독생자 예수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표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잠히 무릎을 꿇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드럼과 같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록]음악이라고 한다. [록]음악은 사탄의 음악임을 밝힌다. 사전에 보니까 [록]이라는 장르를 고 음역의 음악이라는 뜻 외에 좀돌다, 어리석다, 성교하다,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이여](계4,사6) 라고3회를 거듭해야 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천하디 천한 세속의 음악 장르를 드려서는 안된다. 먼저 목회자들이 지식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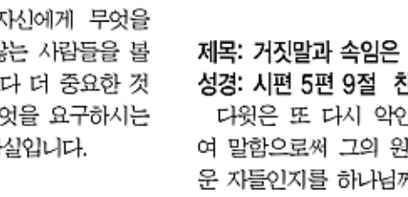
소위 교회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저 음악적으로만 다뤄서는 결코 안되는 [찬양]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할 것이다. 성경적 단어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음악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미 이 세상의 권세는 사탄이 쥐고 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악곡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더구나 요즘 나오는 교회음악을 보면 세속적 장르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고 하신다.

세상 문화의 발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발전이며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힘입어 얻은 구속의 진정한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야 말로 진정한 새 노래일 것이다.



김성기 교수
에녹부흥신학원 교회음악과

낙토 성경 아카데미 1기생 모집



강 사



서 상 운 목사
낙토교회 담임목사

·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요 복이다.
·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
· 성경을 알아야 영생한다(요 17:3).

·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부름심을 받으신 목사님, 교사, 복음을 전하는 분
·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갈급한 분
· 성경 전체를 통으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낙토 성경아카데미

초교파 성경 강해

성경을 알자! 예수를 알자! 인자를 알자!

• 기간 : 2015. 9. 1 ~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11:00 ~ 12:30
• 장소 : 인천 연수구 용담로125번길 41 (구.연수구 연수동 539-8)
(메카리움오피스텔 3층 낙토교회 본당)
• 인원 : 선착순 50명
• 문의 : ☎ 032) 811-6896, 010-8838-6896

(신청서식 참고)
이 름:
주 소:
전화번호:
소속교회:
직 분: 생년월일:

http://www.dtu.ac.kr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 · 편입생 모집안내

본교는 말씀과 삶을 통합하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주역들을 모집합니다.



총장 황원찬 박사

			필요특성화반	필요일, 전임제 수업		
석사과정	목회학석사(M.Div.)			주간: 화수목, 야간: 월화목	3년	00명
	사회복지(M.A.)		사회복지전공, 복지상담전공		2년	00명
	상담심리학(M.A.)		상담심리치료전공		2년	00명
신학석사(Th.M.)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2년	00명
박사과정	목회신학박사(D.Min.)		목회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3년	0명
	철학박사(Ph.D.)	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학		3년	0명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전공		3년	0명
		상담심리치료	상담심리치료학 전공		3년	0명
편입생	석사		목회학, 신학		2, 3년	00명
연구과정			목회학석사(M.Div.ep.) 및 신학석사(Th. M.)과정			00명

※ 특성화 반은 주1일 수업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TEL 031-470-3333 FAX 031)473-5947
입시본부 031) 470-3327(010-2419-1407)
http://www.dtu.ac.kr



찬양과 기도, 말씀의 역사로 치유와 소망을 주는 조강수 목사

집회를 인도하는 곳마다 말씀을 통한 치유의 역사 나타나



지난달 3박4일 동안 천안 운봉산기도원에서 강사로 나선 인천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가 치유 받고,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의 말씀이 증거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말씀을 선포"했다.

강사 조강수 목사는 인천시 서구 장고개로 인천영광교회 담임목사(지저스타임즈 이사장)이며 7월 6일부터 8일까지 영등포교회 집회, 13일부터 16일까지 본 교회집회,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임계 여량교회 집회, 27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충주금식기도원 집회, 8월 3일부터 6일까지 충남 천안시 운봉산기도원집회, 10일부터 13일(목요일)저녁까지 강원도 철원 성소기도원집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응답받고 은혜가 충만하며 축복받고 소망이 회복되는 집회가 되었다.

또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강사 조강수 목사를 통해 시간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 조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예배당에서 잡담을 금하고 덕스러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배 자의 겸손한 자세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 중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국내외 적으로 집회를 통해 병원에서조차 불가능하다는 환자도 조강수 목사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등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천안운봉산기도원 집회를 통해 무릎관절과 허리디스크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노인이 안수를 받고 일어나 걸었으며, 또한 철원 성소기도원 집회를 통해서도 상처받은 자들,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좌절한 자들, 관절염과 암투병으로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이 기도원집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 받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고 치유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인천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강수 목사는 26일(수) 인천경찰청에서 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했으며, 8월31일(월)부터 9월1일(화) 1박2일간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협의회 부흥사연수교육을 담당하며, 9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천안방주기도원 집회, 9월14일(월)부터 17일(목)밤까지 청주금식수양관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며 쉴 수 없는 기도와 집회인도로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편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 이사장이며,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인천장로교연합회 대표회장, 인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대표회장, CBS-TV비전특강과 인터넷 www.cbs.co.kr과 www.jntv.kr www.cpj.kr 방송을 통해 주옥같은 주일설교를 동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인천경찰청교회 조강수 목사 말씀선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교회 경목실장 이세연 목사는 지난 8월 26일(수) 정오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를 초청 경찰청 신우회 주관으로 선교예배를 드렸다.

김복주 집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영광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린 후 조강수 목사가 말씀했다. 이어 김복주 신우회장의 광고가 있었으며 본청 교회 이세연 목사 축도로 마쳤다.



JTNTV 언론부흥사회 연수교육 및 단합대회 열어

주제 : 회복하라 "말하는 대로 되리라"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2015년 하계부흥사연수교육을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 정오12시까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성그리스도의교회(최낙현 목사/상임이사)에서 1박2일간 "회복하라"는 주제로 부흥사연수교육과 신문방송 전국 이사, 지사장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5차 이사회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연수교육에 앞서 사무국장/사무총장 곽영민 목사(예장에녹총회 총회장)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대전중부권지사장 박양우 목사의 기도, 찬양에 박용숙 목사(상임이사), 몸 찬양 강인애 권사, 본사 이사장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봉독한 막11:23절을 인용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사장/연수원장 소진우 목사가 환영사를, 대표이사/ 상임대표 정기남 목사의 인사말씀, 자문 허 식 목사(한국경목총회 총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개회예배에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가 회복될 것과 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평생을 말씀의 권세로 승리하길 기원했다.

이날 저녁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부흥사 연수교육이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상임이사 김창룡 목사(하나님이 디자인하신교회)의 기도, 찬양사역자 강신숙 목사(상임이사), 정중환 목사 부부(예능부 기자), 임해숙 목사(상임이사/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의 수화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 연수원장/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는 "현대교회가 원하는 부흥사의 요건"이란 주제로 1.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 2. 세가지를 갖춘 목회자(말씀, 찬양, 유머어), 3. 교회 흐름에 맞추어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 4. 뒷거래 하지 않는 목회자, 5. 물질에 얽메이지 않는 목회자가 되라, 6.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목회자보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며 간곡히 권면했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부흥사 및 이사들은 광활한 동해 정동진 바다의 파도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연수원장/사장 소진우 목사는 건어물(오징어)을 각자에게 선물하고, 대표회장/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최고의 횟집에서 동해바다 싱싱한 회로 모두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식을 즐겼다.



또한 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정동진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최고의 호텔을 숙소로 정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본사 언론부흥사 및 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1박2일은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연수교육과 사랑에 목회사역에 큰 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며 감사로 답례했다.

본사 일행은 통일안보관을 관람한 후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김준현 장로는 아귀찜을 중식으로 극진이 대접했다. 또한 강원도 삼척지사장 곽동훈 목사의 따뜻한 협력과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상임이사)와 성도들의 정성어린 다과와 음료수로 본사 일행은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교회를 이전하고 있는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삼성중앙교회)가 기념타올 증정,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개혁총회 부총회장), 이규필 목사(합동보수 총회장)등이 찬조금을 전달했다.

지저스타임즈 및 언론부흥사협의회 모든 이사 및 부흥사는 오는 10월 30일(금) 오전 11시 사장 소진우 목사시무 예복교회에서 본사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 목양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백운성, 곽영민 기자 공동취재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9월~10월 집회일정



- 9월7일(월)~9월9일(수) 천안방주기도원 장대식 목사 010.8824.1251
- 9월14일(월)~9월17일(목) 청주금식수양관 박효선 목사 010.5736.3004
- 9월21일(월)~9월23일(수) 부천벧엘중앙교회 이혜진 목사 010.3287.1500
- 10월5일(월)~10월7일(수) 천안아가페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 10월12일(월)~10월14일(수) 주안은총기도원 주은총 목사 010.6327.0191
- 10월18일(주일저녁)~10월21일(수) 거룩한복된교회 한사라 목사 010.4161.5220
- 10월25일(주일저녁)~10월29일(목)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 010.8753.7179
- 10월 30일(금) 오전 11시 지저스타임즈 창간 10주년기념 감사예배 장소 : 예복교회 본당(본사 사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요한계시록1장 강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啓示"(12)

금촛대 교회에 사망과 음부가 없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충만



장한국 목사
개혁총회 부총회장
주사랑교회 담임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마 17:1의 변형산의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이 빛났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받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용모가 해 같이 빛나고 계신데 여기에 더하여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그 때가 가까워져서 아주 임박했기에 더욱 강하게 비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이 곧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금촛대 교회의 수신자들이 앞으로 어둠의 때에 임하게 되고 순교하게 될 때가 가까이 오므로 더욱더 영광을 입혀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한량없이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요한 앞에 계신 주님은 이미 머리에 영광의 관을 쓰셨고,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고, 입에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권능이 역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이 선 칼이 나오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화로운 그분 앞에서 요한은 어두움입니다. 요한은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신이므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은 더욱 빛 되고 영화롭고 나는 더욱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덩어리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도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본문이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금촛대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금촛대 교회에 붙어 있는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요한을 아들의 영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이 금촛대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주님이 세웠습니다.

이것이"처음"입니다. 그리고 금촛대 교회의 완성은 누가하나요? 금촛대 교회에 속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시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교회로 이어집니다.

18절 나는 살아 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본문의"지옥"은 헬라어 원문에 "하데스"로서 정확한 번역은 "음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을 때 지옥까지 내려가셨고 그곳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또 주님이 죽으신 후 시체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것이 음부입니다. 주님이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끌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금촛대 교회 가운데에 계시는 주님이 금촛대 교회에 사망과 음부에 속한 것들을 없애주시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권세·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교로써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입니다. 이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 요한이 현재 본 것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금촛대 교회에서 배출되는 계 1:1의 "그의 종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주님인데 그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일들은 일곱 금촛대 교회에서 산고를 치르면서 결국에는 철장권세를 가진 사내아이를 낳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일곱인으로 인봉한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떼시면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신대로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제1부 사도영성 그 이론적 배경(9)

제1장「사도영성」에 대한 이해



홍항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장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비적인 일이지만 신비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며 응답과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다.

'사도영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는 말씀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되면서 영의사람이 되고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영성의외적인모습이다. '사도영성'은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되고 예수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계발되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삶의방식'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사도영성을 신앙생활에서 더욱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주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주관하에 있는 새생명의 활동', 그리고 '영성과시간의 관계성' 등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의 성숙이 요구된다.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

1.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개념

한국교회의 성장은 130여년의 짧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경이적이었다. 더욱이 '일본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그리고 '4·19 학생운동'과 '5·16 혁명'과 같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일구어낸 성장이라 더욱 반갑고 감사한일이다 그리하여 한때는 한국교회를 배우자는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1970년까지는 매10년마다 100%의 성장을 보이던 한국교회의 성장이 1980년대 말에 들어서는 하향곡선을 그리더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그러다가1995년을 기점으로 다시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금은 정체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경제규모나 1인당GNP가 상승하는 중에 일어나 오히려 경제의 상승에 반비례하여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 한 일은 교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들을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초대교회'는 행2:42 이하 말씀의 '선포'(Kerygma)와 '교육'(didache), '친교'(Kainoid), '봉사'(diakonia)의 구조와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켰다 이러한 '성경의 원형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교육은 개인의 신앙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것과 비례해서 이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더욱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아서 영성이 자라면서 죄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게 된다.

1. 사도영성운동의성경적개념

영성계발에 있어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섬겨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도모한다고 할 때 가장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그들 평신도들의 신앙이 잘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와 함께 또한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은 당연히 이러한 예배와 사역에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가 목회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한 평신도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신도 전체를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목회사역은 성도들의 영성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1) 구약의 영성운동

'영적부흥운동'이란 학개 선지자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흥분되어 깨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는 대중적 집회'를 말한다 이러한 '영적부흥의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모임은 '시내산에서의집회'이다.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곧바로 가나안땅으로 들이지 아니 하시고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셨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 백성이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취하여 노래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노하셨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 그들 중 열마를 심판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을 징계하였다 그리고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워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물에 뿌려 그물을 마시게 하였다.

'엠알디한'(M R De Haan)에 의하면 '금을 태워 뿌려진 그 물의 색깔은 과학적으로 볼 때 붉은 피의 색깔을 띤다'고 한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약백성이 되어 구원받은 자가 범죄케 되었을 때 이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도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그 마음에 다시 죄를 짓게 되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될 때 그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영적부흥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구약성경 속에는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들어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영성부흥집회가 이러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다음호에 계속〉

| 칼럼 |

영혼의 건강지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혹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다. 통상적으로 응급실에 가면 의사는 우선 두가지를 체크한다. 하나는 혈압이고, 또 하나는 맥박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정확하게 체크되어야 한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다.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먹어도 식욕이 당긴다. 그리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그러나 어디가 아프고 병들면 바로 입맛이 없어지고, 별로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뭘 먹어도 모래알 씹듯 한다. 도무지 먹지를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식욕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다가 건강이 호전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입맛이 살아나고 허기를 느끼게 된다.

영혼도 마찬가지이다. 영적으로도 병이 들거나 시험에 들면 말씀에 허기를 못 느낀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어떤 말씀에도 감동을 받지 못 한다. 겨우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깔작깔짝 거리다가 만다. 게다가 말씀에 대한 분석(=음싯 타박)과 비판만 늘어놓을 뿐이다. 몇 달 동안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도 도무지 허기를 못 느낀다. 중병에 걸렸다는 신호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물을 찾음같이 헐떡거린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말씀에 허기를 느끼면 소망이 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소생케 하고 새힘을 주며 이적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급선무는 말씀의 허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자는 구제불능일지 모른다.

두 번 째로 기도의 야성이다. 건강한 사람은 말이 많다. 그러나 어디가 아프면 말수가 적어진다. 말할 기운도 식욕도 없어진다. 병원 중환자실을 가보라 어디 떠드는 소리가 있는가? 아니다 고요하다. 몸이 아프면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상실하고 말을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다. 성도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먼저 말(기도)이 없어진다.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에게 하루종일 조잘거린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아프면 집안이 조용하다. 말할 가운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5분도 못되어 어떤 이는 30분 기도하면 기도 거리가 바닥이 났다고 하소연한다. 아니 아예 하루 종일 단 한번도 기도를 못하는 중병에 걸린 성도들이 즐비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지면 기도부터 막힌다. 그래서 기도할 힘마저 소진되어 기도 없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말(기도, 영적수다)을 찾아야한다. 그것이 기도의 야성이다.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분이나 사역의 양이나 지식이나, 자격은 의미가 없다. 다만 말씀의 허기짐과 기도의 야성으로 인정 받아야한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자는 혈압과 맥박이 중지 되었거나 불규칙한 중환자일 것이다.



박형휘 목사
성현교회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 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시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지저스타임즈
발 행 인 정 기 남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 靑松 건강칼럼... 당신의 혈관 나이는?

100세 시대, 혈관(血管) 건강



박명윤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혈관(blood vessel)은 혈액을 심장과 각 장기 및 조직 사이를 순환시키는 통로이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의 좌심실(左心室)에서 출발하여 온 몸을 돌아 우심방(右心房)에 올 때까지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문제가 생긴다.

인체 혈관(血管)의 총길이는 12만km에 달하므로 지구 둘레(circumference of the Earth)를 두 바퀴 반 정도 도는 거리에 해당한다.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혈액량은 체중의 약 7.5% 정도이며, 혈액은 혈구(血球)라 불리는 유형성분과 혈장(血漿)이란 액체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인간은 생명이 시작되면 혈관을 통해 피가 온몸을 돌기 시작하고, 피가 멈추면 곧 생명도 멈추게 된다. 혈관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온몸으로 운반하고, 온몸을 순환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통로이다. 온몸 곳곳에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영소를 공급하고, 세포의 대사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운반하여 배출한다. 이에 혈관은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혈관은 크게 동맥(動脈), 모세혈관(毛細血管), 정맥(靜脈)으로 나눌 수 있다.

동맥과 정맥은 굵기와 혈관벽의 생김새에 따라 대동맥 및 대정맥, 동맥 및 정맥, 세동맥 및 세정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맥의 굵기는 직경이 2-3㎝인 대동맥에서부터 수 ㎜ 이하까지 다양하다. 정맥은 동맥에 비해 직경이나 내강이 더 크다. 모세혈관은 적혈구의 직경(7-8㎛)과 비슷한 내부 지름을 가지고 있다.

동맥의 벽은 내막, 중막, 외막 등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막은 혈관 안쪽을 흐르는 혈액과 접촉하는 얇은 내피세포가 이루는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막은 밀집된 평활근세포층과 탄력섬유 및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막은 주로 섬유결체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맥은 혈관벽이 동맥보다 더 얇고 덜 조직화되어 있다. 팔다리와 몸통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정맥들은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혈류를 심장에 전달해야 하므로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판막(瓣膜)이 있다. 모세혈관은 한 층의 내피세로로 구성되어 있다.

좌심실과 연결된 대동맥(大動脈, aorta)으로부터 온몸으로 주요 동맥이 분지되고, 다시 세동맥으로 분지한 후 모세혈관으로 이어져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산소농도가 낮은 혈액은 세정맥을 거쳐 정맥으로 합쳐진 후 상대정맥(上大靜脈)과 하대정맥(下大靜脈)을 통하여 심장으로 되돌아온다.

혈관은 통증(痛症)세포가 없기 때문에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혈관 건강에 무심한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는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질환은 혈액이나 혈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상처가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치매 등이 모두 혈액과 혈관에 문제가 생긴 병이다.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血栓, 피떡)이 생기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혈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腦梗塞), 터지면 뇌출혈(腦出血)생겨

혈관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 즉,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이 혈관에 생기는 문제가 질병의 원인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腦梗塞), 터지면 뇌출혈(腦出血)이 생긴다. 심장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등이 나타난다.

치매에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약 70%,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손상되는 '혈관성 치매'가 20% 정도 된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치매환자 수는 올해 8월 초 현재 64만명이 넘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2030년에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비교적 젊은 30-50대 치매환자가 2006년 4055명에서 2011년 7768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50대 환자는 3179명에서 654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젊은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젊을 때부터 혈관 및 대사질환이 생기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異常脂質血症, dyslipidemia) 환자 수는 2012년 122만6000여 명에서 2014년 138만4000여 명으로 12% 늘었다. 이상지질혈증은 남자는 30대, 여자는 40대부터 급증한다.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당뇨병이 있으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IR)이 생기며, 지방이 내뿜는 독소로 인하여 심장, 신장, 망막 등의 혈관을 비롯해 뇌혈관도 손상되므로 치매의 위험도 커진다. 스웨덴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1.69배, 혈관성 치매는 2.17배 더 많았다.

동맥에 혈전이 심하게 생겨 쌓인 상태인 죽상(粥狀)동맥경화는 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冠狀動脈)이나,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頸動脈)에 생기므로 언제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혈관 건강관리를 잘못하여 죽상동맥경화 환자가 매년 9.2% 가량 증가하고 있다. 미국심장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에 1730만명에 달했다.

◇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혈액에 콜레스테롤 등 불순물이 적어야 한다.

특히 혈액 속에 LDL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산화돼 혈관벽에 눌러 붙어 혈관을 막거나 딱딱하게 한다. 한편 HDL콜레스테롤은 쓸모가 없어진 LDL콜레스테롤을 간(肝)으로 운반하여 분해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HDL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신혈관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

혈관건강은 평소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꾸준히 관리하여야 한다. 혈관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은 운동과 식습관이며,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酸化窒素, nitric oxide) 분비를 촉진해 혈류량을 높이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에 매주 4-5일,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다. 음식은 인스턴트식품이나 경화유(쇼트닝)로 튀겨낸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동맥 관련 질환에는 동맥경화성 질환, 관상동맥협착증, 뇌혈관질환, 신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이 있다. 정맥 관련 질환에는 정맥류, 혈전정맥염, 정맥혈전증 등이 있다. 혈관염에는 거대세포 동맥염, 다카야수 동맥염, 가와사키병, 결절다발성 혈관염, 동맥류, 동맥박리 등이 있다.

◇ 내 혈관은 얼마나 늙었을까?

'혈관을 의심하라' 저자 한동하 박사가 제시하는 '나의 혈관 나이'를 평가하는 항목과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혈관 나이는 몇 살에 해당하는지 계산을 해보자.

평가 항목. △나이: 39세 이하/0점, 40-55세/1점, 56세 이상/2점. △흡연: 안한다/0점, 한 적이 있다/1점, 하고 있다/2점. △당뇨병: 없다/0점, 의심/1점, 있다/2점. △고혈압: 없다/0점, 의심/1점, 있다/2점. △고지혈증: 없다/0점, 의심/1점, 있다/2점.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 없다/0점, 앓은 적이 있다/1점, 있다/2점. △위의 질환 가족력: 없다/0점, 1-2명 있다/1점, 여럿이다/2점.

△허리둘레(남자 35인치, 여자 32인치): 보다 가늘다/0점, 그 정도다/1점, 보다 두껍다/2점. △스트레스 정도: 거의 없다/0점, 어느 정도 있다/1점, 심하다/2점. △육류, 인스턴트 섭취: 거의 안 먹는다/0점, 약간 먹는다/1점, 자주 먹는다/2점. △견과류, 채소 섭취: 많이 먹는다/0점, 약간 먹는다/1점, 거의 안 먹는다/2점.

△운동: 규칙적으로 한다/0점, 간혹 한다/1점, 거의 안 한다/2점. △과로: 거의 없다/0점, 간혹 있다/1점, 자주 한다/2점. △성격: 아주 느긋하다/0점, 보통이다/1점, 매우 급하다/2점. △책임감: 약하다/0점, 보통이다/1점, 아주 강하다/2점.

점수 합계가 0-5점이면 당신의 혈관 나이는 30세 이하이며, 6-10점이면 31-35세 청년의 혈관, 11-15점은 36-40세 중년 초기의 혈관, 16-20점은 41-50세 중년 말기의 혈관, 21-25점이면 51-65세의 늙어가는 혈관, 그리고 26-30점이면 혈관 나이는 66-80세, 노인의 혈관에 해당한다.

다음은 혈관을 젊게 하는 생활습관이므로 100세 건강시대를 맞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스트레스(stress)는 혈관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간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한다.

◇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걷기운동이다.

유산소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관 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하고 혈관 내에 면역물질을 만들어 혈관을 건강하게 한다. 주 3회 이상 매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 제2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종아리를 단련한다. 잘 발달된 종아리 근육은 심장과 같은 하트 모양이다.

몸에 살이 쪄 비만이 되면 혈관에도 지방이 쌓이므로 식사량과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여야 한다. 물은 하루 8잔정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이 걸쭉해 지며, 피로와 무기력해지며 두통,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금은 혈압을 높이므로 음식은 싱겁게 먹도록 한다.

혈관 노화의 주범 중 하나는 활성산소이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황색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등 식물성 기름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酸敗)가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몸이 따뜻해야 순환이 잘 되므로 항상 체온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심장에서 멀리 있는 발과 혈관이 몰려있는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근육운동을 통하여 근육을 늘리는 것도 체온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의 영향으로 혈관이 수축되어 혈류 속도가 느려지므로 금연(禁煙)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을 통하여 혈관 질환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금연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수분섭취, 싱거운 음식 먹기, 녹황색 채소 충분히 먹기, 식물성 기름 사용, 신체 보온 등을 실천하여야 한다. 중년 이후 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정상범위에 들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황성주 박사 "건강칼럼" 신종 자폐증! (52)

장시간의 TV시청 안질환, 당뇨병 등 심신건강에 악영향



황성주 박사

현대인의 생활양식 중 TV시청은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TV시청이 심신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TV를 가까이 보는 것은 가성근시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장시간의 TV시청이라 할지라도 눈의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눈의 피로와 통증을 유발시켜 각종 안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TV시청이 건강에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활동 및 운동부족, 가공식품에 의한 인공미각 길들이기, 불필요한 소비욕구의 자극으로 인한 욕구불만의 유발, 불건강한 생활양식의 침투 등이며 가정 내 대화의 단절로 인한 '신종 자폐증'의 출현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TV시청은 건강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다. 적당한 시간의 TV시청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정서적 그리고 지적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사회교육과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TV시청이 시각과 청각을 다 동원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천박한 철학과 조잡한 사상을 강요당하는 셈이 된다.

오랜 시간의 TV시청은 우리에게 부동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체중증가나 비만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당뇨병, 심장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TV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통이나 관절염 등을 만성화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기도 한다.

또한 TV시청은 우리에게 독서와 사고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 가족간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개인의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이른바 '신종자폐증'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족들이 TV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는 궁여지책으로 쓰는 방법이다. 필자가 본 가족끼리 대화가 풍성한 아름다운 가정들은 대개가 TV가 없는 가정이었다.

거실은 대화와 놀이의 장이지 TV시청관이 아니다. 단란한 대화의 기회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TV는 일단 없애고 보라.

그리고 온 가족이 지혜를 모아 가정의 지적·정신적 공백을 메꾸어 가라.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에까지 침투된 개인주의적 사고의 벽은 헐어야 한다. 가정을 자폐증 환자로 채울 수야 없지 않은가.

불가피한 경우 TV는 하루 한 시간만 보라. 스트레스 해소라는 특별한 처방을 스스로 내렸을 때는 90분까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일찍 자는 게 차라리 낫다.

WS
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웨신) 제100회 정기총회

총회장 이영풍 목사
총무 신언창 목사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계의 표준 웨신총회
(-양무리의 본이 되라-벧전5:3)

웨신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 (02)835-2606-7 Fax (02)835-2068
http://ws21.org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한국여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타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 배 시 간 안 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락로 100-18(신천동)
☎ 053-752-8238 010-8537-8291

에녹부흥신학원

대 표 곽영민목사
학술원장 이재갑목사
이사장 배정희목사
총동문회장 주찬양목사
사무국장 김영애전도사

이 사 진

곽에스더목사 주찬양목사 최건숙목사 한사라목사 전미리목사 김정남목사

교 수 진

곽영민교수 박형모교수 김성기교수 박경자교수 김창숙교수
이환호교수 주찬양교수 곽홍선교수 장만천교수 제갈요한교수

http://kiea.onmam.com
- 수업일: 학부, 연구원 과정 - 매주 금,토 오전 10시.
  학술원 과정 - 매주 토 오전 10시.
  기독예능 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인천) 등불교회.
-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숭의1동 441-45).
- 문의: (간사) 010-6778-0651.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용생활 수기 시상식 및 격려

최우수 수상자 등 8명에게 시상 및 영치금 지급해

경북북부 제2교도소(민육기 소장)는 지난 8월 25일"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수기 시상식 및 격려"를 하고 축하행사로 공연을 가졌다. 경북북부 제 2교도소에 민육기 소장이 부임되었다.

민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하여 무엇으로 격려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가운데 동 교도소 교정위원이며 기독교분과 부회장 이기학 목사와 상의하고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수용자들의 삶을 조명하는 계기로 수기를 쓰게 하고 우수한 수기를 선별 심사하여 시상식을 통해 용기와 삶의 소망을 주자는 데 뜻을 같이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수기는 약 30편이 접수 되었으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노력 3명 등 8명에게 시상 및 영치금을 전달했다. 경북북부 제 2교도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엄중교도소로 수용자들에게 수용자 생활 수기를 쓰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용자 수기쓰기를 통해 최우수상을 받은 수용자는 제목이"칠성 장군"으로 자신은 남이 달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별이 일곱 개가 있다고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재범하기까지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를 원망하였지만 이제는 소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 2소에 와서 발견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수용자는 타 교도소에서 뇌출혈까지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교도소에 오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도 받았고, 사회, 그리고 교도소에서도 버림을 받아 2소에 왔다고 생각하여 자살 및 직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도 하였지만 교도관들의 다정한 말투, 진심으로 자신을 배려하는 모습과 민육기 소장의 격려를 통해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아울러 본 2소는 전국 최초로 수용자들에게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최고의 엄중교도소이지만 민육기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는 대구의 저명한 강사와 와서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하고 그 외 시간은 사동 안에서 수용자들이 개인 자습을 하게 하였다.

비록 수용자들이 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입히고 수인의 분이 되었지만 이들이 교도소 안에서 삶의 바른 길을 배우고, 복음으로 거듭난다면 이들은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뜻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와 후원 그리고 동참을 해 주어야 한다. 특히 격려 공연하여 하여 주신 색소폰 연주자 대니김(김세욱 집사)는 앞으로도 자신의 재능이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와서 공연을 하기로 약속도 하였다.

수용자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요, 이웃이라는 생각을 먼저 인식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목회자 복지향상을 위해 오늘안치과와 진료협약체결(MOU)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요셉)는 오늘안치과(원장 유현진)와 함께 국내·외에서 복음확장을 위해 목회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 및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달 21일 '진료협약체결식'을 갖고, 상세한 협의를 거친 후 8월말부터 치과진료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세기총 연합기관의 회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 등 국내·외의 회원 및 직계가족과 소속교회 성도들에게도 질좋은 치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치료받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세기총에 문의(사무국장 신광수 목사, 070-4278-5591)하고, 오늘안치과(02-508-2859)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치과진료협약을 가짐으로 목회자분들의 복지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사랑 선교회"제5차 국제영성 아카데미 열어"



인천광역시 십정동에 위치한 우리사랑 선교회(대표 유연식 목사, 인천 주님의 교회 담임)는 주님의 교회에서 "제5차 국제영성 아카데미"를 오는 9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월요일 오전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강사진으로는 배정진 목사가 월요일 개강예배 설교를, 박추옥 목사가 화요일 오전예배 설교를, 유연식 목사가 수요일 오전예배 설교를, 조창형 목사와 주찬양 목사가 각각 월요일 오후강의를, 이승모 목사가 치유목회에 대해 화요일 오후 강의를, 곽영민 목사가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부흥회를, 수요일엔 최미영 목사가 몸찬양 강의를, 오성숙 목사가 강의를, 수요일 저녁에는 우성주 목사가 저녁 성회와 함께 대표회장 유연식 목사의 폐강기도를 끝으로 마친다.

우리사랑선교회 소속 최미영 목사는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귀국하여 몸 찬양 후학들을 양성하며, 내년엔 "이애라 하늘 춤 훼스티벌" 본선에 선다. 이 아카데미는 00국가 현지 사역자분들과 선교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석한다. 강사진은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되어있으며, 00국가는 아직도 선교가 어려우므로 2008년부터 현지 사역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교육하고 있다.

우리사랑선교회는 설립 된지 12년 된 단체로 대표로 있는 유연식 목사는 목회에 충실하시며, 신학교를 통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편 인천 동암역에서 매주일 무료급식을 하며 어르신들 및 노숙인들에게 예배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인천지사 곽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성명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작년 4월, 온 국민에게 큰 슬픔과 아픔을 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의 관심과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수색 작업에 힘입어 많은 실종자들이 수습되었지만, 아직도 9명의 안타까운 미수습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수습자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지난 8월 19일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조사작업이 재개되었다는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정에 대해 한국교회와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이기를 소망하면서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아직 시신도 발견하지 못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9명의 미수습자 가정으로 속히 미수습자들이 전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미수습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임으로써 세월호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봉합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과 고통을 나눌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비롯하여 희생자 유가족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CTS평생교육원, 특별한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홈바리스타 · 쿠키플레이 · 캘리그라피 과정

창사 20주년을 맞는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CTS 평생교육원'의 특별한 교육과정 △ 홈바리스타 △ 쿠키클레이지도사 △ 캘리그라피 과정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에 진행되는 '제2기 쿠키플레이 지도자교육과정'은 요리활동과 아동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놀이수업으로, 쿠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오감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적인 부분을 터치해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센터 및 교회 문화교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캘리그라피 과정'은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젊은 층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한성욱 캘리그라퍼가 강사로 나선다.(수강료 재료비 포함 23만원)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 홈페이지(www.cts.tv) 나 CTS평생교육원으로 연락바람.(02-6333-1166)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5 표어
- 선교하는 교회
- 사랑하는 교회
-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 대 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새벽 예배 : 새벽 6:00
주일낮예배 :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밤예배 : 오후 7:30
금요기도회 :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전국 교회 주일예배 안내

☎ 게재문의 :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 010-7474-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쉴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길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철야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항표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신학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엄신형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한경총 증경총회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 식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증경총회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주일예배안내
◇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 매월 셋째 주(월-목) 정기집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회주관)
◇ 매월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대표호장)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설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주일예배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억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714-1426, 7236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용숙 목사 (우슬초)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곽순종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헌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이길6-1(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경기도 의정부시 노원로40 수락리버시티 2단지 옆
☎(02)934-12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1시
3부 오후 1시
주일 밤 오후 6시30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담임 박형휘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화요일 화요성경공부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17
☎(02)593-39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춘복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교회



담임 김태경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00
주일 2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무료급식(노숙인 독고노인, 불우이웃)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30 점심대접

인천광역시 중구 큰우물로6,(경동196-7)
전화 : 032)777-0290-1 010-3111-226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영적대각성운동본부



담임 이기웅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묵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불교회



담임 곽영민 목사

◈ 예장(에녹)총회장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본사무국장
(인천지사장,언부협사무총장)

인천시 남구 능해길5(숭의1동)
☎032)891-0651, 010-2080-0651

주님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예심교회 사금열 목사

설립 6주년, 목양일념에 불타 청년들을 용사로 훈련시켜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대형교회가 목회자의 타락으로 썩었고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이 시대의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회가 살아나야 될 영적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한다.

여기 예심교회를 설립하여 지난 8월 초 6주년을 맞이한 사금열 담임목사를 만나본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예심교회로 이름을 지었다는 사금열 목사는 1년 365일을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목양일념에 불타고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는 좌우명으로 애창곡은"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되신다"를 애송하고 있는 사금열 목사(58)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남편(61)과 1녀 1남이 있어 목회사역에 귀한 동역 자로 동참하고 있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시댁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

사금열 목사는 결혼을 하고보니 시댁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으며 시댁 어른의 전도로 아주버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렸다. 초등학교 시절 시내버스에서 들었던 삼각산이 결혼 후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말로만 들었던 삼각산을 엄동설안 눈보라와 칼바람을 이겨내며 매일 밤이면 민족제단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 당시 여자의 몸으로 산에 오른다는 것은 위험하다며 만류를 했지만 삼각산 민족제단에 올라가 기도를 하지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이미 자신의 마음은 사역의 길로 가야겠다는 다짐과 간절함을 느끼면서 결국 신학을 하게 되었고, 재학 중에 처음 의료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필리핀, 미얀마, 인도 등에서 의료(醫療)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믿음의 집(전가화 목사)에서 15년간 전도사 사역으로 섬겨왔으며, 서울축복교회/성민수양관(김정훈 목사)로 옮겨 5년 6개월간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 기도가운데 2009년 8월 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사거리에 예심교회를 설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벌써 설립 6주년을 맞이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강력한 연단과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사금열 목사를 크게 쓰시기 위해 체계적으로 강력한 훈련을 시키셨고, 그 결과 유명한 외국 목회자들과 국내외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사금열 목사는 여성이지만 남성목회자가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예심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성도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다. 아울러 사금열 목사는 신유의 은사가 강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체험을 했기에 새로운 삶을 얻고 활기찬 신앙생활로 교회를 섬기며 사 목사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는 모습들이다.

예심교회는 비록 지층이지만 환기시설이 A급이며 생동감 넘치는 성도들의 분위기에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교회, 신앙의3대 비전에서 1. 주의 영광으로 해방이 있는 교회(롬6:22), 2. 주의 치료로 평화가 있는 교회(레26:6), 3. 주의 빛으로 창대한 교회(창26:13)라는 글귀가 감동적이다. 설립 6주년을 맞이한 예심교회는 사 목사의 강력한 영적 지도력에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귀한 그릇들로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믿어진다.



예심교회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비결은?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예심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있다면 1년 365일 저녁 9시만 되면 예배도우미 파라쯔 찬양단의 리더 장대거 전도사, 싱어 민승희, 김봄이래의 찬양으로 함께 어우러진 성도들의 찬양의 열기는 절정에 이르게 되고 사 목사의 설교에 성도들의 심령은 강력한 감동과 여기저기 회개하는 역사,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정말 이 시대에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교회가 아닐 수 없다.

매일 밤 심야기도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사명감에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지역의 영원구원을 위하여 전단지를 들고 만나는 사람들, 또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등 성도들의 열정은 놀랍다. 지금 십자가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잠자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예심교회는 깨어 있다. 사금열 담임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총회 국제노회 현 부노회장이며, 현 한국기독교영성 총연합회 실무회장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법인이사를 맡고 있으며 선교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목회의 비전을 말한다면?

목회비전의 첫 번째는 교회성장이요 두 번째는 우간다의 11명의 아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고, 인도의 교회와 이 외 선교활동 지원과 신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즉 청년들의 다음세대에 관심을 갖고 어미세대가 아비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다음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모여서 용사가 되었듯이 예심교회는 이들을 용사로 키우는데 목적이 바로 목회의 비전이라고 말한 사 목사!

그래서 처음 예심교회에 등록하면 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던지 다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고 용사로 훈련되어 어미세대 아비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젊은 세대에게 밀어주어 이들이 용사로 훈련받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용사로 활동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들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로 성장시키는데 있다며 덧붙였다.

현재 예심교회는 주일1부 예배를 주일오전 : 10시30분, 2부 예배 : 주일오후 1시30분,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예배 : 오후 9시, 심야작정기도 : 365일 오후 9시에 있으며, 선교사역은 볼리비아 1명, 우간다 어린이 11명, 신학생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예심교회는 6주년 특별 부흥성회를 8월 21일 오후 9시"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적 유산을 주리라"는 주제로 레오나드 쿡스 목사, 자넷 쿡스 목사, 아이나 카 목사, 번 엘라 스미스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뜨겁고 은혜로운 밤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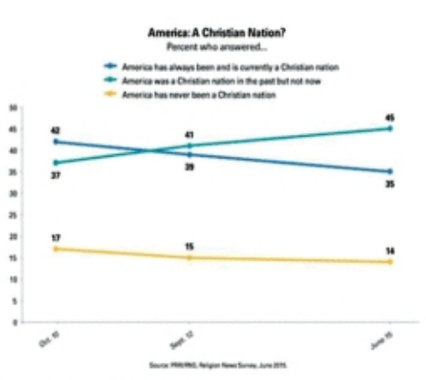




미국 '더 이상 기독교국가 아니다'

기독교국가로 인식하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

PRRI(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와 라이프 웨이 리서치(Life Way Research)의 최근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미국인의 35%만이 미국이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여기고,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 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비율이 증가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인식이 퇴색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미국인 10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미국을 여전히 기독교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2010년에 조사에서는 4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줄어든 35%로 나타난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2010년도에 37%에서 현재는 45%로 8%나 증가 했다. 또한 "미국은 결코 기독교 국가였었던 적이 없다"라는 대답은 17%에서 14%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냈다.

한편 "미국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3%이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38%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의하는 이들 중 아프리카 계(62%) 미국인이 백인(51%)보다 많았으며, 복음주의자 2/3 이상이 미국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부지역 59%,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 66%, 여성 58%, 45세 이상 복음주의자들이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는 의견에 더 적극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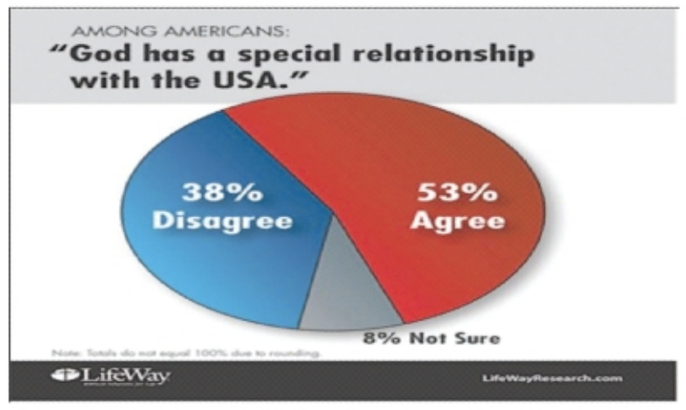
라이프 웨이 리서치의 이사장 에드 스테처(Ed Stetzer)는 "미국인들에게 'God Bless America'는 노래 이상의 '기도의 의미'가 담겨있다"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미국을 축복할 것이라는 전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신학적으로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나라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테처는 "이전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대다수가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에 '하나님 아래 있는'에 대한 문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데이터를 얻은 적이 있었다"며, "애국심과 예배의 조합, 또한 교회에서 미국 국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물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머서대학 교수 데이비드 구쉬는 "국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최고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애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 상 련

●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 1회 오전 8:00 3,4층 대예배실
2회 오전 10:00 1층 대예배실
3회 오전 11:30 3,4층 대예배실
주일 오후예배 : 오후 2:30 1층 대예배실
저녁예배 : 오후 7:00 3,4층 대예배실
수요일예배 : 오후 7:30 1층 대예배실
금요기도회 : 오후 8:00 1층 대예배실
매일새벽예배 : 오전 5:00 1층 대예배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530-814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전화:(061)272-4908, 278-0692 팩스:(061)-278-0693
홈페이지 http://www.mokpojuan.com

대한예수교장로회(에녹)총회 제2회 정기총회

총회장

곽영민 목사

할렐루야!
에녹 총회가 주의 이름으로 설립되어
제2회 정기총회를 열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산하 노회와 지교회들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보시기에 좋은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교단은
2014년 5월에 설립된 신생 교단으로
분열, 분파가 아닌 순수 자생교단으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에
가입된 건전한 교단입니다.

일시: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부천) 예수사랑교회(최금용 목사)

총 무 장만천 목사

서 기 주찬양 목사

회의록서기 조충만 목사

회 계 최금용 목사

간 사 김영애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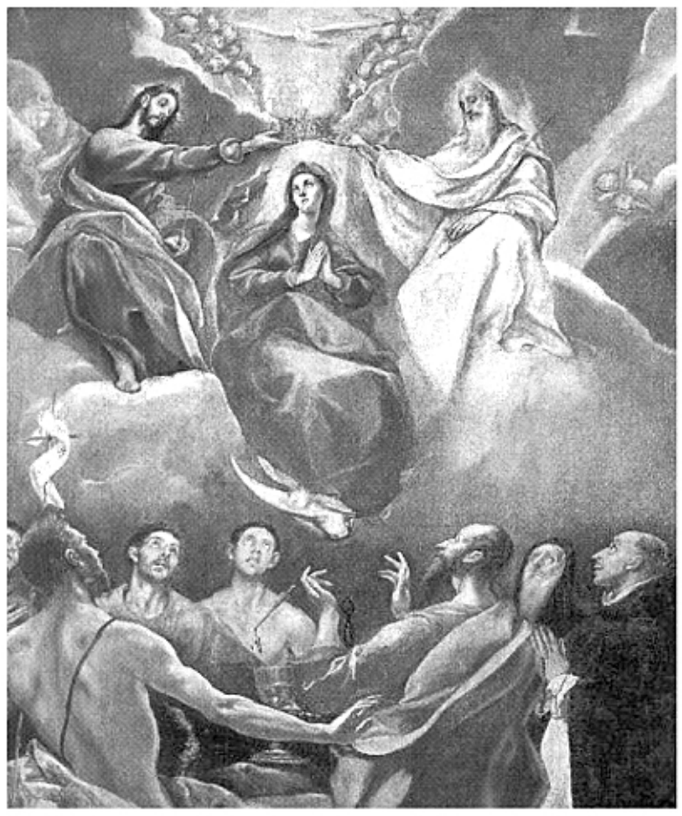

총회 가입문의: (간사)010-6778-0651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 중심"

카톨릭 '마리아 숭배' 교리 실체(1)

한국천주교회와 한국정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와 NCCK에 속한 개신교 8개 교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 이름에 명시했듯이 천주교를 그리스도교로 보고 이들과의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톨릭은 정통 기독교가 절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마리아'에 대한 카톨릭의 교리이다.

카톨릭에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성모설), 마리아의 '무죄잉태설', 평생무죄설, 평생처녀설 마리아 승천설, 하늘의 여왕, 마리아 보호설, 마리아 중보설, 마리아 '성현숭배' 등을 교리화 하여 숭배한다. 카톨릭의 교리를 비평한 조영엽 박사의 '카톨릭교회교리서 분석,평가,비평서'를 통해 차례로 알아본다.



1. 성모설- 마리아는 과연 '하느님의 어머니' 인가?

카톨릭의 마리아 관련 교리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느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시니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주장이다.

에베소 공의회(Council of Ephesus, 431)에서 예수님은 신인(God-Man)이니, 그의 어머니는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결의하였다. 이후 감독들은 마리아를 공경하는 의미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칼케돈 공의회(Council of Chalcedon, 451)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의 인성면에서 하느님을 잉태하는 '하느님의 어머니'(God-bearer)라고 칭호하였다. 가톨릭에서는 1월1일을 '성모마리아의 날'로 지키고 있으며 소위 제 259대 교황 비오 11세(1992. 2.12 - 별세 1939. 2.10)는 1931년 에베소 공의회 1500주년을 축하 하였다.

한편 제261대 교황 비오 12세(Pius X Ⅱ 즉위 1939. 3. 2 - 별세 1958. 10. 9)는 1950년 소위 가설 교리(Dogma of Assumption)를 정의하였다. 가설 교리란,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시고, 부패에서 보존되었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하늘의 여왕, 중보자로서의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495조, " ... 교회는 마리아를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라고 고백한다" (OS, 251 참조.), (…Church confesses that Mary is truly Mother of God.)

제509조, "마리아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 바로 하느님이신 그 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다."라고 한다.

(Mary is truly Mother of God since she is the mother of the eternal Son of God made man, who is God himself.)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목회헌장 제53항, " ..카톨릭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든다." 또 제54항, "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특히 신자들의 어머니이신 천주의 성모님께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밝히고자 한다.'

비평 (A Critique) -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Incarnation)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 그만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리아를 "여인 중에 복되도다." (눅1:42)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마리아를 신격화(神格化)시켜 숭배케 하기 위함이 아닌가!

예수그리스도의 도성인신은 하나님(神)이 사람(人間)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神性)에 인성(人性)이 부과된 하나님-사람(God-Man, 신인)이 되신 것이다. 도성인신하신 예수그리스도는 그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단일체이므로 그의 인성만을 분리하여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가?

마리아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되었다. 온인류의 어머니는 하와이다.(창 1:27; 3:1-8). 마리아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인류의 어머니가 아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Isis, goddess of fertility; 풍요의 여신[女神])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광식 기자 (kidokilbo@daum.net)

개국 3주년 CTS라디오JOY · CTS Y, "홈커밍데이" 개최

24시간 CCM · 말씀 · 성가 · 간증 프로그램 등 청취자들에게 큰 호응 얻어



개국 3주년을 맞이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 앱 라디오방송 CTS라디오JOY(이하 '라디오JOY')와 'CTS Y'는 8월 31일 서울 동작구 CTS 멀티미디어센터 11층 컨벤션홀에서 후원자, 방송출연자, 서포터스들과 함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후원자, 방송출연자, 서포터스, 프로그램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 1부 라디오JOY , CTS Y 사역 경과보고 △ 2부 찬양사역자 동방현주 · 하얀 · 우미나 씨의 특별 공연 △ 3부 기도회로 진행되었다.

감사 인사를 전한 CTS 이영표 사장은 "앞으로도 라디오JOY 와 CTS Y 는 삭막한 이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끼게 해줄 따뜻한 친구처럼 청취자들에게 다가갈 것" 이라고 말하면서 "앱 라디오 방송을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 도구로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13년 개국한 대한민국 대표 앱 라디오 방송 '라디오JOY'와 청년감동채널 'CTS Y'는 스마트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청취할 수 있는 앱 라디오다. 24시간 찬양 과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과 성가, 클래식, 올드팝, 청년설교, 묵상, 성경강해, 지식콘서트 등 10대에 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라디오JOY'와 'CTS Y'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애플 앱 스토어(아이폰)에서 '라디오조이', 'CTS Y'로 검색해 다운받아 청취할 수 있다.

日本, 그리고 獨島와 韓國(4)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담임

사실 히로히토는 1931년에 시작된 전쟁을 용인하고 지휘했으며, 만주사변을 용인했고, 진주만을 공습한 뒤에는 대본영에서 전쟁을 지휘했다. 전쟁의 패색이 보이던 1942년, 일본의 외무장관은 항복을 건의했는데 이를 계속 거부함으로 수백만 명을 더 죽게 하고 원자폭탄 투하를 불러들인 장본인이다.

그가 죽은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전범으로 인류에 미친 어마어마한 죄상을 들어 극악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면 좋으리라. 일본이 독일처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피해자인 우리를 자극하는 이유는 미국이 전쟁을 지휘한 히로히토 일왕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쟁에 책임져야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대로 두니 일본국민은 세계 대전에 대한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히로히토는 그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 측근이 백아더 장군의 묘소를 찾겠느냐? 고하니 거절한 사람이다. 바로 배은망덕한 자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모르고 침략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전형적 일본인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에 독도는 조선 초기 관찬서인『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두 섬이 6세기 초혐(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도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도쿄 전범재판에서 맥아더 앞에 서있는 일왕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독수리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병아리 같았으리라. 사형! 이라는 한마디면 그는 즉시 죽는다. 그런데 지금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꼭 불독과 같이 생긴데다 잔뜩 찌프린 얼굴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다. 독도 등 동아시아 영토 갈등의 원인은 과거 잘못을 청산하지 못한 일본이 크게 반성하여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의 재위기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세종장헌대왕실록 世宗莊憲大王實錄〉에 수록 된 전국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영인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활자본, 1454년(단종 2)에 완성되었다. 편의상 〈세종실록〉이라 부르는 163권 154책 가운데 지리지는 권148~155의 8권 8책에 해당하며, 328개 군현의 지지(地志)가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1454년에 완성되었으나 이미 바탕이 된 것은 1424년에 세종의 명령으로 시작되어 8년 만인 1432년에 완성된 〈신찬팔도지리지 新撰八道地理志〉였다. 따라서 이 지리지의 내용은 세종 초기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찬팔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니다.

〈신찬팔도지리지〉가 작성된 이후 세종 때에는 최윤덕 · 김종서 등의 지휘 아래 지금의 편안도, 함경도 북부지역 일대를 개척하여 압록강 · 두만강 일대에 4군 6진을 설치하는 등의 영토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의 기록이 첨가되고 내용이 재정리 된 것이다. 내용은 권148에 한성부 · 개성 · 경기도, 권149에 충청도, 권150에 경상도, 권151에 전라도, 권152에 황해도, 권153에 강원도, 권154에 평안도, 권155에 함길도로 실려 있다. 각 도의 기록 양식은 도에 관한 총체적 개괄을 앞에 싣고, 계수관(界首官) 별로 소속 군현의 지지를 기록했다.

다음호에 이어짐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는 본 신문방송 단체이며 취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기도원 및 개 교회, 농어촌 오지에 이르기까지 신청하시는 교회를 찾아가 지역복음화를 위해 집회를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본 단체는 총재 이효은 목사를 중심으로 건전교단의 목회자들입니다. 벌써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언론부흥사협의회에 뜻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환영하며 부흥사로 같이 뛰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합니다.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press@hanmail.net 웹하드: I.D-cpjkr, P.W-km1122

OGKM(조국을푸르게) 창립감사예배 및 첫 이사회 열어

북한나무심기운동전개...한인 디아스포라 네트



북한 산림녹화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OGKM(One Green Korea Movement, 조국을 푸르게, 이사장 김호진 장로)은 지난 1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설가온에서 창립감사예배 및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관우 목사 (CCC 통일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정종훈 교수(연세대)가 대표기도를 하고 김호진 장로(OGKM 이사장)가 인사말을 했다.

이사장 김호진 장로는 "북한나무심기는 가장 효과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이라며 "북한 나무심기는 북한의 산림조성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푸른 강토로 만들기 위한 친환경적인 통일사업이고, 북한의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조성사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우리 민족의 미래세대에게 푸르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는 민족공영의 통일사업"이라며 "또한 북한나무심기는 정치와 군사적 오용 위험성이 가장 적은 대북지원 통일사업인데가 북한당국이 가장 강조하는 숙원사업이면서 한국정부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평화통일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은상 목사(평통기연 사무총장)의 경과보고를 했다. 최 목사는 "OGKM은 지난 6월 30일 발기인 모임을 가진 데 이어 7월 8일 통일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했고, 7월 31일 통일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 통일부 대북인도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박성민 목사(한국CCC 대표)가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본문으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민 목사는 민족복음화운동의 선구자 고 김준곤 목사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하자'는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소개하면서 OGKM(조국을 푸르게)가 민족을 푸르게 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또 "이 세상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윗의 물메돌 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의 사랑에 잡혀서 한손에는 사랑과 한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할 이유가 분명해 졌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최선으로 섬기며 통일을 이루어 보다 더 진보를 만들어 가는 OGKM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총회와 이사회에서는 임원12명(이사10명, 감사2명)을 인준했다.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에 나무심기사업을 전개해 온 김호진 장로(미주OKKM 대표), 이사로는 박성민 목사(한국CCC 대표), 이춘호 목사(미주OGKM 사무총장, 뉴욕에버그린장로교회 목사), 정종훈 목사(연세대 교수, 전 기독교윤리학회장, 평통기연 공동운영위원장), 문흥규 장로(국립 산림과학원, 수원 서둔교회 장로), 윤은주 박사(뉴코리아 상임대표), 이관우 목사(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CCC 통일연구소장), 배기찬 박사(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평통기연 대외협력처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뉴스파워 대표), 이승호 교수(미주OGKM 운영이사, 뉴욕대 교수) 등을 인준했다.

감사로는 최은상 목사(성서한국 사무처장, 평통기연 사무총장, 뉴코리아 운영이사), 재정감사), 정현수 교수(평통기연 정책사무처장)을 인준했다. 또한 초대 사무국장에 김동언 국장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OGKM은 이날 주요 사업으로 북한에 나무씨앗 보내기 운동, 지자체와 민간단체 종교계와 연대하여 북한나무심기 추진, 나무심기 교육 및 캠페인 모금, 통일부의 북한녹화사업에 참여, 북한나무심기 목적의 방북단 조직 및 남북간 네트워크 구축 등 5가지 사업을 확정했다.

한편 OGKM은 비법인체로 있던 지난 2013년 12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인된 위임장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 한국의 지자체, 언론사, 각종 NGO들이 북한 나무심기를 위해 OGKM과의 제휴를 확대해 가고 있다. 따라서 OGKM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우리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북한나무심기운동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GKM은 북한나무심기를 매개로 지구촌 전역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와 국제NGO들과의 제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어서 북한나무심기를 넘어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와 국제적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도운동 제1회 국제대회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열린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나라를 고치소서!

나라를 살리고 통일을 이루는 특별철야기도성회

국가기도운동 한국본부 대표회장 조갑진 교수는 제1회 국가기도운동 국제대회가 오는 9월 11일(금) 밤 9시~12일(토) 새벽 4시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기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2015년 제1회 국가기도운동 국제대회 한국본부 대표회장 조갑진 목사는 지난 29일 서울시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민들레영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대회는 조국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 도덕적 타락과 한국 교회의 심각한 영적 위기, 북한의 전쟁의 위협과 그에 따른 평화적 복음 통일을 갈망하는 지도자들이 모여"회개와 통일을 위한 국가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해외 교포 800만을 대표하는 지도자 150여명과 한국 교회의 건강한 지도자 300여명이 오는 9월 11일 밤 9시부터 12일 새벽4시까지 순복음 부천교회 대성전에서 3,000여명의 기도용사들과 다함께 모여 본 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가기도운동은 2004년 스위스의 한스 피터 뉘에시 회장(세계국가기도운동 회장)에 의해 시작된 기도운동으로 스위스 전국에 세워진 기도 그룹들이 1년에 한번 한 자리에 모여 나라를 위한 연합기도의 날로 정하고 국가기도회라고 했다. 이 기도운동은 스위스로부터 핀란드, 에스토니아,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조갑진 교수(서울신대)를 비롯한 국내외 기도자들이 2014년 5월 29일 여의도 국회 헌정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회개와 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중 오는 9월 11일~12일 제1회 국가기도운동 국제대회를 순복음부천교회에서 개최된다며 개최일정을 밝혔다.

이날 대표회장 조갑진 교수는 이 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과 통일의 새 역사를 준비하며 세계열방에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국과 전세계 기도자들을 네트웍하여 기도의 깃발을 수여하고 기도, 전도, 섬김, 거룩의 운동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마다 기도 제단의 불이 타올라 어둠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데 있다고 했다.

대회일정을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나라를 고치소서"라는 주제로 한국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회개의 역사와 한국 교회의 갈 길에 대해서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가 강사로 나서 국가기도운동 신학 포럼을 시작으로 본 대회가 환영인사 및 개회선언으로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오는 9월 11일~12일 새벽4시까지 진행된다.

국가기도운동 국제대회의 강사는 대표회장 차군규 목사(국제독립교회 연합회회장/순복음부천교회), 설교 박조준 목사(세계지도력개발원 원장/갈보리교회 원로목사), 메시지 한스 피터 뉘에시(세계국가기도운동 회장), 메시지 조갑진 목사(한국국가기도운동 대표회장/서울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이며, 참가국은 한국, 미국, 일본, 스위스, 핀란드, 러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우즈벡, 스리랑카, 볼리비아, 탈북자 교회 등이다.

피종진 목사 9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1(화)~ 2(수)	김해 주안교회(정상은 목사) ☎(051)322-5707
3(목) 오후	대전힐링교회(장요한 목사) ☎(042)488-0191
6(주)~ 8(화)	인천 성문성결교회(김용남 목사) ☎ 010-5474-8515
7(월) 오후	안산 칼빈성서신학(학장 백재현 목사) ☎ 010-7404-8541
10(목) 오후	(사)조이플러브(대표이사장 한재섭 목사 ☎ 010-6239-0691
13(주일) 오후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041)531-7216
14(월) 오후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박사) 대학원 목회연구원 (원장 이 선 목사) ☎(02)520-0801
14(월) 오후	민족복음화부흥사연수원(원장 우광순 목사) ☎ 010-9021-8490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5(화) 오후	부천 소양교회(정효신 목사) ☎ 010-9600-1617
16(수) 오후	속초 로뎀수양관(원장 여호수아 목사) ☎(033)633-8589
17(목) 저녁	대전 제일큰교회(김창수 목사) ☎(042)524-9106
21(월)~23(수)	공주 한성행복한교회(홍사라 목사) ☎ 010-5458-6040
25(금) 저녁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형용 목사) ☎ 010-2235-3927
	제92차 해외성회(192nd Overseas Assembly)
28(월)~30(수)	인도(India) 방갈로 연합성회 주최: 기도치유아카데미(원장 장요한 목사)
30(수)~10.2(금)	인도(India) 뉴델리 연합성회 주최: Nysic World Mission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일하며, 배우고, 선교하는"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

지난달 24일 저녁 충남 태안의 작은 드르니항구 마을 드르니항 교회에서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디모데 선교회가 주관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이름하여 "한 여름밤의 바다내음 가득한 콘서트"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삶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 시대 제1, 제2 디모데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을 초청하여 가슴에 아름다운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 원장이신 한평우 목사(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유럽목회자 연구원 EMI 원장)는 수 십년간 로마에서 하나님을 주신 사역을 감당해 오다가 자극적인 문화에 익숙한 시대를 살며, 메말라 버린 정서 속에 갇혀 무감각 내지 무감동으로 포장은 그럴듯한데 신앙의 내용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영적 꿈과 도전을 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울 수 있는 길과 기회가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유홍준 음악 선교사(학부장/ 전 서울대음대교수/ 디모데&토브브리지 선교음악원 감독/ 디모데 선교회 총무)와 이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박남수 목사(부원장/ 의정부 송암교회/ 디모데 선교회 대표),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에스 대표), 강장원 목사(기획인사이사/ 안산 비젼교회), 김상일 목사(경영지원이사/ 일산 좋은 이웃교회), 최신정(홍보실장/ 토브브리지 선교회 이사), 허영훈 박사(해외센터장/ 댄허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과 함께 디모데 선교회를 조직하고,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를 개원할 예정이다.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는 복음의 핵폭발을 이루었던 사도바울의 순교지이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성지인 로마에서 "일하며, 배우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최정예 선교 아카데미를 지향하며, 첫째, 올바른 신앙인 육성과, 둘째, 청소년 진로개발 및 청년기 세계관 정립, 셋째, 미술, 음악, 예술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넷째, 유럽 유학 및 언어연수, 현지취업비전을 개발하고, 다섯째, 기독교 역사관을 비롯한 유럽국가 역사공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디모데 로마선교 아카데미는 9월 12일(토) 원장이신 한평우 목사를 중심으로 개원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아카데미는 9월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고교 졸업자로 기독청년, 선교사, 목회자 후보생 등 (남자 20명, 여자 10명) 아카데미 1기생을 모집한다고 한다.

(문의-유홍준 음악 선교사/010-9070-5921) 상담 면접 후 선발된 원생들은 예비과정과 본과정을 통하여 소명 또는 전공에 따라 이태리 현지 대학 진학(국립대, 사립대, 시립 아카데미 등) 및 신학, 음악, 미술, 건축, 디자인, 요리 및 각종 기술학교로 진학하여 꿈과 소망을 이루도록 도우며, 동시에 별도 연수 후 선교가이드 사역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까지 도울 계획이라고 한다.

아카데미 원장인 한평우 목사는 이일에 로마 한인교회가 동역함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겠다고 그 마음을 전했다.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청소년들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와 소식이 되었으면 한다고 그 뜻을 밝히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디모데 선교회 관계자들은 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제100회 총회소집 공고

주제 : 성령으로 하나되어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9:31절)

총회장



김정열 목사

· 일 시 : 2015년 9월 22일(화)~23일(수) 오후 1시(1박 2일)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고흐 7층)
· 장 소 : 주사랑교회
· 전 화 : 031)424-7612 010-4436-7060



제1부총회장 강성희 목사 (경전노회)



제2부총회장 장한국 목사 (대한노회)



서 기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



회의록서기 임순종 목사 (대전노회)



회 계 박민규 목사 (대한노회)



부회계 조순형 목사 (경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JCAL COLLEGE & SEMINARY

■ 신입생 · 평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정	학과/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야간)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학력이나 성별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 위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반대학생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됨
신대원	신학과 (주/야간) 4학기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졸업 또는 이수한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 됨
통신신학		· 신학부 및 신대원 수료자 강도사 수위 후 목사안수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 함
· 학력, 경력, 성별에 상관없음
· 계절 학기를 활용함
· 여목제도가 잘 활용화 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 함
· 본 과정은 서울 본교와 각 지방 캠퍼스가 모두 동일 함

천안개혁총회신학
학장 : 김 정 열 박사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세교길 43번길 27-17 (한성A상가 3층 새예루살렘교회)
전화 : 041-534-8765 010-4731-0391

대전개혁총회신학
학장 : 임 순 종 박사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중반7길 75 (변동3-43) 2층 큰산성교회 內
전화 : 042-320-9193 010-6413-3456

부산개혁총회신학
학장 : 이 온 우 목사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242 (안락동 947-14)
전화 : 010-5511-4848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연락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5 (읍내리 613-3) 총회장 : 김정열 목사(010-4731-0391) 서기 : 조재호 목사(010-6266-1331)